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

유미옥
순천향대학교 간호학 박사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Mi-Ok Yu
Soonchunhyang University, PhD. RN

요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M지역과 K지역의 4학년 간호학과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3.55 \pm .34$ 점(5점 척도),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3.79 \pm .50$ 점(5점 척도), 자기관리역량 정도는 $3.67 \pm .47$ 점(5점 척도)이었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r=.65, p<.001$)과 자기관리역량($r=.70,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관리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9, p<.001$)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학과생활에서 자기관리역량을 쌓아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 직원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16, to December 9, 2016, in 135 students of 4th grade nursing students in M and K area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average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3.55 \pm .34$ (5 point-sc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as $3.79 \pm .50$ (5 point-scale), self-management competency was $3.67 \pm .47$ (5 point-scale).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r=.65, p<.001$)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r=.70, p<.001$). In add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r=.69, p<.001$) with self-management competenc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intervention program to help nursing graduates maintain effici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smooth communication with patients, guardians and staff at the job site after graduation by building their own management competency in their academic life.

Keywords :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Management Competency,
Nursing College Students, Graduation Year

*Corresponding Author : Mi-Ok Yu(Soonchunhyang University)
email: miok732000@hanmaail.net

Received April 22, 2019

Revised May 28,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은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간호핵심역량을 습득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해 가는 단계에 있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과교육과정에 충실하며 자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1].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간호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인데, 학과 정규교육과정과 임상실습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들은 의사소통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환경에서 대상자, 보호자 및 직원 간의 관계 형성과 환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3],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확하게 환자의 요구를 평가하고 간호에 반영해야 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타 학과 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4]은 간호대학생 역량 강화의 하나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간호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학과에서는 인문사회교육과정에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목을 구성하며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이 어려워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7].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능력으로,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8]. 간호사의 업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대학생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졸업학년의 간호대학생은 아직 성인초기의 발달단계로 대인관계능력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으나[9], 간호실무현장에서 여러 대상자를 상대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10]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에는 의사소통능력 과 대인관계능력이 포함되며, 대학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11].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도 핵심 기초역량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대해 매 학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은 졸업과 취업에 있어 치밀한 자기관리역량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은 학생 개개인이 성장하기 위한 지식과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12], 대학생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정에 임하는 지식, 기술, 능력의 추구를 말한다[13].

지금까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자기관리역량에는 대인관리, 감정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주어진 과제나 역할을 스스로 이끌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14],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졸업 후 간호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M지역과 K지역에 소재하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15]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측 검정일 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상관관계에서 중간 크기인 .30, 검정력 .90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2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35부(96.4%)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16]의 의사소통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Her[17]가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Park[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2였으며, 본 연구에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19]가 개발하고 Chung[2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2.3.3 자기관리역량

자기관리역량은 Hellriegel과 Slocum[21]이 개발한 도구를 Kim[14]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에 실시되었으나, 연구자의 일신상 이유로 분석 등의 연구 진행은 2019년에 실시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의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 하였다.
-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여자가 117명(86.7%), 남자가 18명(13.3%)이었다. 종교는 무교 77명(57.00%),

천주교 30명(22.2%), 불교 18명(13.3%)의 순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 60명(44.4%), 막내 50명(37.0%), 중간 17명(12.6%)의 순이었다. 가족형태는 두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이 113명(83.7%)으로 많았고, 한 부모 가족 13명(9.6%)의 순이었다. 학과만족도는 보통이 75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55명(40.7%), 불만족 5명(3.7%)의 순이었다. 실습만족도도 보통이 74명(54.8%)으로 많았으며, 만족하는 학생이 61명(45.2%)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8(13.3)
	Female	117(86.7)
Religion	Christian	30(22.2)
	Buddhism	18(13.3)
	Catholic	10(7.4)
	No	77(57.0)
Birth order	First	60(44.4)
	Middle	17(12.6)
	Youngest	50(37.0)
	Single	8(5.9)
Family type	A two-parent home	113(83.7)
	A single-parent family	13(9.6)
	Divorce / remarriage home	5(3.7)
	Grandparent family home	4(3.0)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a	55(40.7)
	Moderateb	75(55.6)
	Dissatisfactionc	5(3.7)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61(45.2)
	Moderate	74(54.8)

3.2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3.55±.34점, 대인관계능력 정도는 3.79±.50점, 자기관리역량 정도는 3.67±.47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N=135)

Variables	Min	Max	M±SD
Communication Competency	2.79	4.68	3.55±.3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2.70	5.00	3.79±.50
Self - Management Competency	2.60	5.00	3.67±.4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과만족도(F=9.717, $p<.001$)와 실습만족도(t=3.6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도 학과만족도(F=5.861, $p=.004$)와 실습만족도(t=3.59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보다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역량은 학과만족도(F=7.999, $p<.001$)와 실습만족도(t=3.002, $p=.003$)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학과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이나 불만족인 학생보다 자기관리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 ($r=.65$, $p<.001$)과 자기관리역량($r=.70$,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관리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9$, $p<.001$)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N=135)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r(p)	r(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65(<.001)	
Self-Management Competency	.70(<.001)	.69(<.001)

4. 고찰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Table 3. Differ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Management Competenc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55±.34	-.448 (.655)	3.88±.50	-.840 (.402)	3.67±.39	.079 (.937)
	Female	3.59±.35		3.78±.50		3.68±.48	
Religion	Christian	3.55±.40	.185 (.906)	3.83±.49	.198 (.898)	3.63±.48	.516 (.672)
	Buddhism	2.88±.34		3.81±.52		3.74±.40	
	Catholic	3.59±.35		3.86±.43		3.54±.40	
	No	3.54±.32		3.76±.51		3.69±.49	
Birth order	First	3.52±.37	.881 (.453)	3.76±.52	.863 (.462)	3.60±.50	1.109 (.348)
	Middle	3.54±.32		3.84±.51		3.66±.41	
	Youngest	3.57±.32		3.77±.49		3.74±.44	
	Single	3.72±.22		4.05±.27		3.84±.54	
Family type	A two-parent home	3.55±.34	1.795 (.151)	3.79±.50	.039 (.990)	3.69±.47	.491 (.689)
	A single-parent family	3.40±.25		3.80±.52		3.53±.55	
	Divorce / remarriage home	3.74±.14		3.84±.46		3.76±.51	
	Grandparent family home	3.74±.27		3.85±.46		3.65±.31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69±.37	9.717 (<.001) a)b	3.96±.54	5.861 (.004) a)b	3.84±.50	7.999 (.001) a)b, a)c
	Moderate ^b	3.46±.27		3.67±.42		3.59±.39	
	Dissatisfaction ^c	3.39±.47		3.74±.44		3.18±.70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3.66±.35	3.614 (<.001)	3.95±.47	3.591 (<.001)	3.80±.45	3.002 (.003)
	Moderate	3.46±.24		3.66±.80		3.57±.46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Yeom[22]의 연구에서 3.71점, Park과 Lee[23]의 연구에서 3.74점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수준이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졸업 후 각 현장영역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직원과의 관계유지, 환자나 보호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위해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로 진행되는 의사소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24]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역할극[25]이나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 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보완, 강화될 때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26]의 연구에서 3.73점, Kim[27]의 연구에서 3.59점보다 약간 높은 결과이다. Chae[28]는 간호사가 되면 간호대학생일 때보다 더 많

은 대인관계 기회를 가정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이 나아가갈 직무현장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 되지 만[29],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쉽지 않으므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과정에서의 중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역량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k[30]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2.48점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약간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실습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2], 자기관리 향상을 통해 학과생활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Yeom[22], Park과 Lee[2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학과와 실습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은 임상실습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가며 학과와 실습상황에 점차 적응해 가고,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일반적 특성 중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결과는 Lim[26]과 Chae [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과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과생활의 기초가 되는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은 일반적 특성 중 학과 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 및 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공에 관심이 높은지, 학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학생들의 자기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관리역량이 높을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Baek[3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에 유의한 관계는 없었지만,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관리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Cho와 Yun[31]의 연구에서 자기관리역량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목표지향적 노력, 정서조절 등의 자기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연구한 Kim[32], Song, An과 Chung[33] 등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변수를 자기관리역량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진행되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적인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중재적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정 지역 대학에 한하여 대상자가 편의 추출되었으므로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지역과 K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4학년 간호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학과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에 정적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은 자기관리역량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학과생활에서 자기관리역량을 쌓아 졸업 후 취업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 직원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E. Zavertnik, T. A. Huff, C. L. Munro,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to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9, No.2, pp.65-71, Feb, 2010.
DOI: <https://dx.doi.org/10.3928/01484834-20090918-06>
- [2] R. McCaffrey, R. M. Hayes, A. Cassell, R. S. Miller, A. Donaldson, C. Ferrell, "The effect of an educational programme on attitudes of nurses and medical residents towards the benefits of positive communication and

- collabor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8, No.2, pp.293-301, Feb, 2011.
DOI: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11.05736.x>
- [3]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7698-707, Nov,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 Nursing core competencies, Retrieved December 20, 2012, from <http://www.kabon.or.kr/>
- [5] Y. E. Kwon, S. Y. Kim, "Factor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968-981, Feb,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3.967>
- [6] H. S. Jung, K. R. Lee, "Factor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35-2647, 2012.
UCI: <http://uci.or.kr/G704-000930.2012.14.5.025>
- [7] Y. K. Yang,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5, No.2, pp.99-108, May, 2018.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8.25.2.99>
- [8] H.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pp.485-503, 1995.
- [9]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63.
- [10] S. J. Lim, E. Y. Park,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51-16, May, 2013.
DOI: <http://dx.doi.org/10.5977/jikasne.2013.19.2.151>
- [11] S. T. Kim,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1, No.2, pp.599-626, Jun, 2009.
UCI: <http://uci.or.kr/G704-000253.2009.21.2.004>
- [12] D. B. Peterson, M. D. Hicks, Leader as coach: Strategies for coaching and developing others, Minneapolis, MN: Personnel Decisions International, 1996.
- [13] J. H. Seo, H. D. Sul, S. H. Song, H. S. Lee, Organization behavior, Seoul: Han Kyung Sa, 2018.
- [14] Y. G. Kim, *The research that self competency influences on the management by objective and the satisfaction of an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2014.
- [15]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6] R. B. Rubin, M. M. Martin, S. S. Bruning, D. E. Pow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the Communication Association, Atlanta, GA, 1991.
- [17]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380-409, Dec, 2003.
UCI: <http://uci.or.kr/G704-000203.2003.47.6.003>
- [18] S. J.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a group coaching program to improve undergraduates' interpersonal skill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2.
- [19] J. Warner,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MA: HRD Press, 2007.
- [20] T. Y.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2010.
- [21] D. Hellriegel & JW. Slocum, Organizational behavior, mason, OH: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pp.328-332, 2011.
- [22]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20-330, Apr,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4.320>
- [23] J. S. Park, J. H. Le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depress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0, pp.254-262, Oct,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10.254>
- [24] S. K. Hwang, Y. J. Le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4, pp.518-527, Nov, 2015.
DOI: <https://doi.org/10.5977/jikasne.2015.21.4.518>
- [25]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4, pp.2593-2601, Apr, 2013.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4.2593>
- [26] M. 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225-233, Sep,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9.225>
- [27] H. J. Kim, "The effects of socioculture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62-70, Apr,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62>

- [28]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95-103, May,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95>
- [29] Y. H. Kim, J. S. Jeong, J. K. Lee, Y. J. Lee, "An analysis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2, No.4, pp.1-20, Nov, 2010.
DOI: <https://doi.org/10.17927/tkjems.2010.22.4.1>
- [30] P. G. Baek, "A study on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7, No.3, pp.349-387, Jun, 2013.
UCI: <http://uci.or.kr/G704-SER000001745.2013.7.3.010>
- [31] H. J. Cho, J. Y.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1, pp.267-290, Nov,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1.267>
- [32] Y. S. Kim,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pp. 773-782, Oct,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10.37>
- [33] M. S. Song, H. J. An, Y. H. Chu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 5, No.1, pp.40-48, Jun, 2010.
UCI: <http://uci.or.kr/G704-SER000002270.2010.5.1.006>

유 미 옥(Mi-Ok Yu)

[정회원]



- 2012년 2월 :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2019년 6월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소아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